

科學技術 雜誌의 歷史的 考察 (上)

— 初創期에서 現在까지 —

慶熙大講師 白 淳 在



지금은 20世紀 後半期——人類歷史를 通하여 이처럼 偉大한 科學文明을 이룩할 때를 다시 찾아 볼수 없을만큼 科學의 最尖端을 걷고 있다.

人間의 꿈과 活動舞臺는 地上에서 宇宙로 移動해 가고있다. 이러한 驚異의인 科學時代에서 살아가기 爲하여는 科學的 實力을 가진 民族만이 生存이 可能한 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한편 이러한 時代的 性格에 비추어 우리 現實을 돌아보았을때, 너무나 時代에서 落後된 絶望感을 아니 가질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國家가 志向하는 科學發展策으로 뒤늦게나마 科學技術處라는 새로운 機構가 마련되어, 이 後進性 克服을 위한 온갖 努力이 傾注되어 있음을 千萬多幸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의 念願이나 使命感은 機構設置만으로 可能하다고는 볼 수 없다. 政府의 積極的인 政策과 아울러 充分한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날로 發展하는 科學思想이나 技術을 받아들일 科學情報의 迅速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機關誌가 必要할 것이며, 이 機關誌는 과거의 科學誌가 지녔던 專門性이란 極限을 피하여 보다 大衆에게 科學思想을 普及傳達해 주는 구실을 해야 할것으로 보아진다.

勿論 科學은 科學者의 專門性에 屬하는 問題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當面한 問題의 하

나는 科學人口의 增加가 곧 解決지어져야 한다는 命題이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宿命的인 (여기에는 政治的 여러가지 要因과 他意에 依해서 強制로 만들어진) 諸問題가 包含되어 있으나, 여하튼 오늘의 韓國의 科學을 낳기에, 雜誌는 어떠한 役割을 해 왔으며 하는 角度에서 이를 初期雜誌의 形態나 內容을 더듬어 살펴보는 가운데 앞으로의 展望을 그려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科學의 專門的 問題나 思想問題보다도 한낱 科學誌의 發達 變모를 더듬는 書誌的 考察에 局限되었음을 밝히고 싶다.

韓國雜誌史의 年輪도 이제 70年의 고비가 넘었다.

그간 수다한 雜誌가 나왔다가 들어가고 하면서도 즐기찬 歷史를 쌓올려서 오늘을 잇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數多한 雜誌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科學」誌는 어느 程度 發刊 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韓國科學을 形成해 주는데 얼마만큼의 影響을 주었으나 하는 點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이 問題를 論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雜誌가 지녀야 했던, 어찌할수 없는 宿命的 課題와 與件이 있었다는 點을 밝히고 이러한 一般的 性格을 論하는 가운데 「科學」誌의 發達過程을 論하는 것이 當然하다 보아진다.

우리나라에 最初로 雜誌란 새로운 形態가 移植된 것은 1880年代에 있어서 基督教文化의

影響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初期의 雜誌가 移植하기에는 이 風土는 너무나 거칠뿐더러 여러가지 氣象條件이 고르질 못했다.

모처럼의 新文化의 새로운 물결은 元來부터 깊게 뿌리박고 서린 異質的 傳統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지 못하는 마치 물위에 기름 도는 격과 같았다. 한편 이러한 新文化의 스며드는 물결의 틈을 타고 日本의 侵略勢力이 차차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으니 韓國雜誌의 宿命的 命題는 처음서부터 政治라는 테두리속에서 자라야만 했다. 그러기 때문에 外國의 雜誌史도 양 文化를 滿喫하고 多樣한 꽃을 피울수는 없었다.

그러나 만큼 韓國雜誌史는 처음서부터 外勢의 侵略에 對抗하는 레지스탕스의 性格과 使命을 지녀야만 했던것이다. 다시 말하면 雜誌의 發達要因인 政治的 阻害를 받았기때문에 雜誌의 使命이나 焦點이 全部 여기에 모두어졌다는 것이다.

가령 韓末의 雜誌 1896年 最初의 雜誌라고 일컬을 수 있는 「獨立協會會報」를 筆頭로 1910年 韓日合邦 즉 亡國의 時期까지의 15年間의 期間동안에 發刊된 雜誌의 總數가 60餘種이나 된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가 政治雜誌로서의 特色을 가지고 있고 겨우 몇개의 專門誌 特殊誌가 겨우 면목만을 갖춘것에 불과 했다.

한편 合邦後 解放前까지의 26年間에 있어서의 雜誌發行 總數는 근 60種이나 된다. 그러나 이중에서 科學誌가 차지한 比率은 겨우 몇種이 지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아직도 近代科學을 이룩할 基礎構造를 쌓지 못하고 在來의 農業國으로서의 封建性을 脫皮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겠으나, 더 큰 原因은 日帝侵略으로 인한 모든 收奪政策이 우리에게 科學發展의 機會와 要因을 박탈해 버린데 그 理由가 큰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가령 여기에 韓末에서 解放前까지의 우리나라 科學誌의 發刊年代를 계제해 보면 더욱 여실히 알수있다.

◇ 韓日合邦前分

工業界 1909年 2月 創刊

◇ 韓日合邦後 解放前까지

工友 1920年 10月 創刊

文明 1925年 12月 創刊

科學 1929年 6月 創刊

白頭山 1930年 10月 創刊

科學朝鮮 1933年 6月 創刊

以上에서 合邦前에는 겨우 一種, 日帝時代는 5種에 지나지 못한 統計를 잡아볼 수가 있다.

雜誌의 性格도 科學誌로서의 專門誌라기보다 科學啓蒙이 主性格이였고, 그중에서도 「白頭山」같은 것은 少年科學雜誌였던 것이다.

한편, 1929年 6월에 創刊된 「科學」이란 雜誌는 當時 延專, 數理學研究會에서 發刊된 것이다. 內容도 권위있는 論文이나 새로운 科學思想의 紹介 등으로 本格的, 學術的 科學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역시 그 性格이나 配付範圍에 制限되어진 點으로 보아 科學誌의 本來使命을 다했다 볼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1933年 6月發明學會에서 發刊한 「科學朝鮮」誌는 비로소 雜誌로서의 經營方式뿐만 아니라 內容體裁面에서도, 많은 讀者와의 接觸을 可能케하여 얽히는 雜誌로서 成功한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韓國雜誌가 이것도 一般大衆誌의 경우에도 創刊號가 곧 廢刊號 그렇지 않다면 그 수명이 몇號를 넘기지 못한, 이 不毛의 風土에서, 그것도 大衆과의 接觸이 지극히 어려운, 專門誌, 科學誌로서 10年 以上이나 계속되어 꾸준히 명맥을 이어 왔다는 事實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 일뿐더러 차차 科學思想에 對한 意識度가 높아졌다는 現像의 一端일 것이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우리나라 科學雜誌의 하나 하나를 그 性格이나 內容을 中心으로 살펴보기로 하면, 우선 우리나라 최초의 科學誌라고 稱할 수 있는 「工業界」는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工業에 對한 啓蒙誌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 우리는 이 「工業界」가 과연 엄격한 문제로서 科學誌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提起 되겠으나, 그 內容으로 보아서는 科學誌로 보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이 「工業界」가 創刊되던 1900年代는 아직 우리 나라에 學問上의 專門性이나 分化過程을 이룰 수 없는 때였으며, 科學이란 곧 工業이란 單一用語로서 表現되었으며 工業 또한 實業이란 포괄적 用語에 相通되었던 것이다.

「工業界」는 1909年 2月 28日 創刊 되었으며 編輯人 申植植 發行人 朴贊翊의 名義로 發行所는 工業研究會內의 工業日報社로 되어 있다.

雜誌의 體裁는 菊版으로 총 49餘페이지로 단 3號로 끝이고 말았다.

지금으로부터 60年前 아직, 모든 우리의 체제가 封建性을 못 벗어나고, 혼돈속에 방황할 때 이미 국가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唯一한 길이 곧 工業教育 實業教育에 있음을 看破하고 工業思想을 鼓吹하고 工業에 관한 論文과 講座를 設置하여 이의 普及과 啓蒙에 앞장섰다는 事實은 여러모로 우리나라 科學發達에 意義를 주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科學思想 普及을 위한 「工業界」의 使命이나 努力은 우선 그 表紙에 「심볼」한 다음과 같은 句절에서도 알 수 있다.

「各工自習之寶典」

「實業發達の機關」

한편 發行趣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本報(工業界)는 我大韓國의 富強基礎를 建立하고 二千萬 公衆의 實業思想을 鼓吹할 主義로 實地修學할 工業各科의 講義와 外他 工業에 關한 論說과 新奇한 叢聞을 編輯刊行함이니 工藝發達에 最大機關이요 工學修習에 唯一寶典이라 血性이 有하고 榮譽가 有한 我一般 同胞는 斯業을 研究하고 斯業을 實施할 義務를 是思해야 斯報를 拔例賜愛할 心願頂祝

工業研究會 工業月報社」

이와같이 「工業界」는 스스로의 趣旨를 通하

여 밝힌바와 같이 國家의 富強基礎는 實로 科學振興에 있으며, 또한 本報의 使命은 곧 이러한 科學思想의 傳達에 있음을 밝힌데 이미 당시의 雜誌가 메스컴으로서의 重要한 구실과 使命을 지니고 있음을 淸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科學의 淸된 發展은 理論을 基礎로 다시 이것이 實際修習의 過程으로 옮기는데 비로소 있다고 主張한 點은 60후 오늘날 곧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 즉 科學은 곧 產學, 다시 말하자면 科學의 發展은 곧 產業經濟發展을 수반해야 한다는 同一한 問題點에서 出發해있는 點을 注目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科學思想을 어떻게 表現傳達해 왔었나에 대하여 여기 創技의 目次만을 紹介해 본다.

◇染織의 概論

◇鐵物原料의 種類와 性質及 製法

◇應用化學의 概論

◇化學 第1章 總論

◇物理學

◇金工의 概論

◇金工材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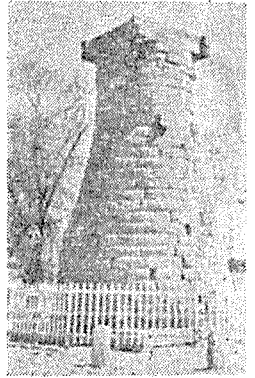
◇木材의 防腐法

◇土木概論

◇測量術의 必要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工業界」는 비록 啓蒙誌의 性格에서 못 벗어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를 계기로 새로운 西歐의 近代科學思想이나 技術을 받아들리게 한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生活에서 科學思想의 必要를 強要했고 우리의 思想的 體質變化를 자극해 준것에 틀림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모처럼의 科學思想의 發顯이나, 先進科學技術을 導入하여 近代化의 基礎



作業을 이룩하겠다는 民族的 意志는 또한 무너져야 할 장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는 바로 韓日合邦이라는 엄청난 悲劇의 運命을 當한 탓인 것이다.

合邦後 解放까지 36年間の 歷史는 悲劇 그 대로인 것이다. 日本은 노골적인 植民地政策 속에서 收奪단을 일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近代化의 모든 要因이 沮害또는 除去 當했던 것이다. 政治經濟 文化의 全面이 희생을 當했다. 더욱 日本은 韓國을 永遠히 植民地化 하기 爲하여 科學敎育 施設等を 故意的으로 기피하여 後進性을 영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만큼 「科學誌」의 發行이나 發展을 바랄수는 없었다. 工業界가 創刊된 후 11年만에 비로소 「科學」誌가 하나 出現하였으니 1920年 10月 20日 創刊의 崔宗煥 編輯에, 工友俱樂部에서 發行한 季刊誌였다.

題目은 「工友」로서 版形은 四·六倍版으로 역시 科學啓蒙誌로서 당시 우리나라 工業의 現狀과 앞으로의 必要性을 宣傳하여 知識의 發展을 위한 工業 學術論文 등이 收錄되어 있다.

「工友」에 이어 1925年 12月에는 「文明」이란 科學誌가 또 나왔다.

雜誌의 體裁는 菊版 40餘페이지로 發行은 京城科學通信社로 되어있고 發行人은 金昌權 雜誌의 수명은 이것이 길지못하고 단 2號로 끝났다.

「文明」誌의 性格은 科學 및 社會科學思想을 普及 啓蒙시키는 가운데, 民族的, 自主獨立을 達成시키고저하는 意義를 뚜렷이 내걸고 있다.

이러한 思想的 發露는 3·1運動후에 있어서 外部로부터 받아들여진 새로운 學問的 思想的 影響의 탓도 있겠으나 한편 內部로부터 싹터오른 銳利한 自我의 發見과 批判속에서 어떠한 解決策을 要求 모색하게 된 當爲的 意志가 自然 이러한 科學思想의 重要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題目부터가 科學이란 타이틀을 씌우

지 않고 더 큰 포괄된 意味로서 「文明」이라고 이름지어진데서도 이 雜誌가 뜻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文明」은 확실히 完全한 科學雜誌로서의 性格과 體裁를 갖추고 있다. 앞서 말한 「工業界」가 科學啓蒙誌로서의 영역을 못벗어났다고 하면 이 「文明」에 와서는 啓蒙의 性格을 完全히 벗어난 보다 專門의이면서도 메스메디어의 구실도 아울러 갖춘 點이 特記할 문제이다.

「文明」誌가 志向하고 있는 科學的 使命과 雜誌로서의 구실은 그의 創刊辭를 통하여 역역히 表現되어 있다.

「……前略……무엇으로써 暗澹한 現實을 뚫고 나가서, 熱烈한 生欲을 擴充할까 어찌하던 煩悶과 苦痛의 繼續뿐이든 過去生活을 轉換하여 歡喜無盡한 未來를 開拓할까 이제 우리는 그 最善의 方法을 깊이 覺悟하였다. 卽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의 實智識을 깊이 研究하고 넓히 探索해야 굳은 信念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科學은 人間을 確實한 正路로 引導한다. 科學의 光明은 모든 迷妄을 打破한다. 科學에 눈 뜨고, 科學에 信念 가진 人生에제만 幸福이 올것은 疑心 없는 일이다. 보라 宇宙間 無盡藏의 大秘密을 間斷없이 探出하여 前人の 想像未到한 驚異하고 壯實한 發明으로써 人間生活에 萬般의 便利를 주는 것이 自然科學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며 人類社會의 進化의 大原理를 究明하여 眞善美한 理想的 制度를 追求하며 그의 實現에 努力하여 自由하여 自由平和의 日月이 明朗한 新世界가 將次 展開하려함은, 社會科學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랴.

아! 科學의 힘이여 偉大하다.

우리의 前程에 籠閉된 黑霧를 一掃하고 崎嶇한 暗礁를 破碎함은 오직 科學의 知識의 힘뿐이다. 그로써 우리의 生榮을 謳歌하는 歌曲의 琴線을 다시 고르게 될 것이다. 고로 우리는 科學知識의 普及을 위하여 微力을 不顧하고 奮發하노라. 그 第一步로서 이 不完全하나마 科學雜誌 「文明」을 創刊하고 將次 充實한 準備下에 健步를 試하려 하노라.」

이 文明誌를 통하여 비로소 科學은 多樣한 學問의 모습을 통하여 새로운 世界를 提示해 주고 있다.

그리고 科學의 振興發展策이 技術의 모방에서 보다, 더 根本的 科學原理의 追求에서 近代科學의 基礎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理論은 韓國科學이 지금까지 밟아 온 後進性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일 것이며 이로부터 幼稚하나마 韓國科學의 기이 움직이기 始作한 出現點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文明」은 우리의 近代科學思想이 지금까지 西歐思想에 갇혀, 傳統적인 우리科學이 멸시되는 가운데서 이를 깨우쳐 주고 이를 發見한 點에서도 主體的 우리 科學思想 確立에 功績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努力은 寫眞畫報를 通하여 瞻星臺를 紹介하고 우리 科學의 뛰어남을 자랑한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文明」誌의 性格이나 役割을 다음에 그 目次(創刊號)를 通하여 대신하고자 한다■

科學의 分類

特殊相對性原理

라디오파와 地球

生物의 生殖作用과 그 壽命

生命論

宗教와 科學

文明論

老子思想의 解剖

無抵抗主義에 對한 「톨스토이」와 「간디」

<筆者: 雜誌蒐集家, 評論家>

第一回 “科學의 날” 記念行事 兼 第三回 全國科學技術者大會

趣 旨 文

現代는 한마디로 科學技術의 時代라 할수 있습니다. 日進月步의 科學技術이 容赦없이 世界를 變革하는 世界史의 現實을 直視할 때 現代科學技術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諸領域에 있어서 支配的인 힘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現在와 將來의 人類運命을 決定할 運命的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科學技術은 確實히 人類歷史에 있어서 르네상스나 宗教改革 나아가 佛蘭西革命보다도 큰 歷史的 社會的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科學技術의 浸透力은 如何한 民族이나 國家도 이에 抵抗할수 없는 것이니 尙차 新生開發途上國家로서 經濟的 自立과 祖國近代化作業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科學技術의 重要性과 意義는 再論을 要치 않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는 科學과 技術이 없었고 近代化의 르네상스가 없었습니다. 다만 前近代的인 牙直속에서 “가난”과 “文盲”과 “疾病”을 안고 살아 왔습니다. 우리네 先祖들은 近代化의 出航을 念頭에 조차 두지 못했고 “해돋는 東쪽의 조용한 나라”의 自慰속에 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래인 잠에서 깨어나 民族의 意志를 近代化의 方向으로 集約하면서 經濟開發 國土開發 社會開發 科學技術開發이라는 巨大한 事業을 同時에 推進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歷史를 創造하며 記錄하는 우람한 前進의 隊列에 모두 參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指向하는 經濟自立과 祖國近代化의 지름길은 科學과 技術을 開發하는 일입니다. 科學技術로서 資本의 責困을 카바하고 產業技術開發로서 產業構造의 近代化와 製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며 나아가 技術革新으로서 “豐饒하고 近代化된 社會”를 先導하기 爲하여는 最急先務가 科學技術의 振興이 아닐수 없습니다.

科學技術은 「工業立國」 「輸出立國」 「近代化된 祖國」을 向한 戰略的 要點입니다. 이에 우리들 科學技術者들은 祖國 近代化의 旗手로서 重且大한 使命感을 自覺하고 協同과 團結의 廣場에 모였습니다. 우리들 科學技術者들은 “科學하는 國民” “科學하는 生活”의 앞장을 서고 科學技術振興이 汎國家的인 事業으로 推進되도록 그 素地와 氣風을 造成하는데 先導의 구실을 다할 것을 決意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1966年과 1967年에 2次에 걸친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開催하여 이 나라 科學技術人들은 矜持와 意慾을 더욱 드높이는 契機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創定實施되는 意義깊은 “科學의 날”을 期하여 第3次 全國科學技術者大會를 열고자 하는 것이 오니 江湖諸賢의 絶對한 聲援과 協助가 있기를 衷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1968年 4月 日)